

15 June 2014

No.1



# South wind blows!

## 통일세대 청소년 패션쇼

목차:

통일세대 패션쇼	1
발행인의 글	2
교육의 남풍	3
삼분박 찬양	3
Passion on Fashion	4
Passion on Fashion	5
노란 리본	6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7

지난 2014년 6월 7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위치한 산다미아노 카페에서 통일세대미래포럼(대표: 명드보라)과 (사)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이 공동 주관한 “남풍이 분다: Passion on Fashion”라는 제목으로 열린 청소년을 위한 패션쇼가 참석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끝내기 아쉬운 여운을 남기며 잘 마쳤다.

패션쇼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패션부 학생10명, ICS(국제크리스천고등학교) 학생12명, 그리고 인사이드

스 선교회 및 외국인 TCK (Third Culture Kids)들이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창의적으로 지은 아름다운 의상들을 선보여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약 2 시간 가량 지속된 프로그램은 명드보라 통일세대미래포럼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통일세대 청소년 패션쇼를 전후로 섬의 장막(대표: 손해석), 유미숙 교

수(명지대음대), 허문영 박사((사)평화한국) 등의 찬조출연과 세이레 기도회로 마무리 되었다. 통일과 청소년들의 창의적 생산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은 몇몇 어른들의 메시지가 영상포럼으로 전달되었다.



## 발행인의 글



# 통

일세대 미래포럼은 한반도의 통일 세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와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로부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나누고자 하는 포럼입니다. 자신의 작은 자리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적 요소들을 도모하고 평가하는 모임이 되고자 2012년 6월 정확히 2년 전에 오픈니언 컨설팅테이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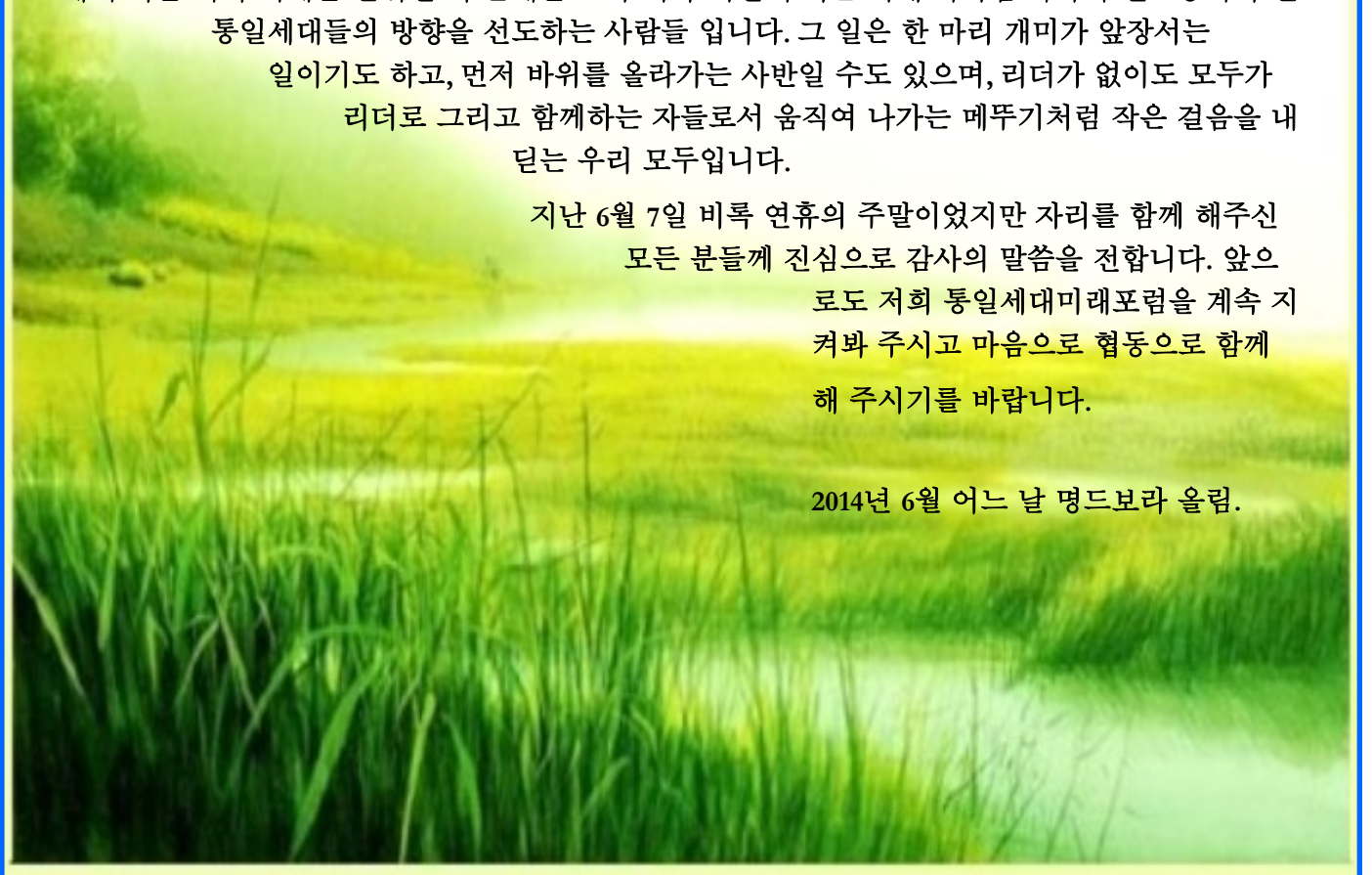
첫 컨설팅테이션에서는 김활영 박사(국제총신대학원장 역임, 현 ATEA 연구소장), 김요한 선교사(인사이더스 선교회 대표), 허문영 박사((사)평화한국대표), 김정용 원장(특수병원원장), 임용석 목사(한꿈교회담임), 손해석 목사(샘의장막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통일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통일에 대한 소망과 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자로서 위상으로 변혁시켜 남북이 하나 되었을 때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7일에는 (사)평화한국과 공동주관하여 통일세대미래포럼 일환으로 통일세대청소년들을 위한 패션쇼가 정동에서 열렸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남북통일과 세계선교를 향한 소중한 의미를 담은 질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아굴의 잠언(30장)을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존재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지금은 작은 자이지만, 집단적인 행동과 지혜를 쌓는 씨앗들이 되고자 합니다. 개미 한 마리, 사반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 도마뱀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존과 풍요와 삶의 질을 위해 무리를 지어 지혜를 발휘한 이 존재들 보다 더욱 귀한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의 선교동력이 될 통일세대들의 방향을 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한 마리 개미가 앞장서는 일이기도 하고, 먼저 바위를 올라가는 사반일 수도 있으며, 리더가 없이도 모두가 리더로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로서 움직여 나가는 메뚜기처럼 작은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입니다.

지난 6월 7일 비록 연휴의 주말이었지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 통일세대미래포럼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협동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6월 어느 날 명드보라 올림.





## 세대를 잇는 교육의 남풍이 분다...

통일세대 미래포럼은 한국 신학교육 및 선교계의 몇몇 리더들을 모시고 영상포럼을 개최하였다. 영상포럼에는 김의원교수(충신대학교총장직임, 현 백석대학교부총장), 손해석 목사(셈의장막 대표), 김활영 목사(AFMI 원장), 박광옥목사(MRI 원장, 필리핀 선교사), 임용석 목사(한꿈교회담임), 허문영 박사((사)평화

한국대표) 등이 참여하여 통일한국과 세계선교의 남아 있는 과업을 위하여 어떤 남풍이 불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였다.

김의원 교수는 교육현장에서 바라보는 통일을 이야기 하였는데, 통일과 함께 남과 북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10대 후반 20 대 초반의 청

년들일 것임을 지적하였고, 미래 청소년들의 모범이 될 지금의 청소년 삶에 대한 준비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세대간 이어지는 교육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들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롤 모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김의원 교수(백석대)

## 삼분박 음악을 통한 남북한이 하나되는 찬양을...

남북이 하나되었을 때에 어떻게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진정 남북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장면은 생각 자체로도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한다. 우리의 예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찬송

은 대부분이 사분박으로 이루어진 서양음악을 배경으로 한다. 통일 이후 서구식 음악을 가지고는 문화적 이질감이 큰 남과 북이 하나되는 찬양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민족에게는 자체로 고유의 삼분박 리듬이 있다. 이는 원시복음의 내용이 담긴

것과 같은 아리랑이나 월드컵 열기 때에 우리가 외치는 “대한민국 짜~ 자작 짹 짹”하는 리듬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는 무당의 굿거리였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하여 우리의 열을 담아 하나님을 찬

양할 수 있다.

손해석 목사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서 남쪽의 우리 자신이 먼저 지역적 세대적 분열을 극복하여 화합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남북 화합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일본과도 복음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때에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제거되며,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담은 진정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했다.

삼분박 예배 음악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의 문화 코드 가운데에 이 음악의 개발이 절실하다. 삼분박 장단을 주도적으로



손해석목사(셈의장막)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다. 3은 하늘의 숫자이고 우리는 삼분박 장단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악에는 삼분박이 많이 들어 있다.



# ***Passion on Fashion!***



통일세대미래포럼 청소년 패션쇼에 참가한 의정부 국제크리스천고등학교학생들  
(크리스, 하나, 소민, 신디, 디케이, 윌리엄, 레베카, 나홀라, 정혁, 노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패션부 학생들

# 노란 리본



과

일을 먹고 치운 접시 아래 닦지 않은 카레 묻은 접시가 포개져 개수대에 있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해 봅니다. 인생도 이같이 깨끗한 접시 뒤에 같은 줄로 포개져 있으면 얼룩진 자신을 잊고 깨끗한 접시인 줄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교회라는 접시 뒤에 줄을 선 사람들과 돈 줄 뒤에 선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와 선교계는 어떠하십니까...

잘못을 징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혹여 돈 줄 뒤에 서있지는 않습니까.

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에서 헝가리를 빠져 나와 런던으로 공부하러 온 17살의 한 소년은, 가난한 외톨이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가난했고 실패만 하다 뉴욕으로 건너가 헤지펀드(Hedge fund) 매니저로 금융가에서 성공한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1930-)의 말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 떠오릅니다.

소로스의 철학 중 '왜곡된 관점이 부적절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재귀의 원리'에 의하면 사주社主 실세를 교회라는 이름을 앞세운 이단으로만 취급, 문제를 잘못 파악하여 오대양 30명의 목숨이 세월호에서 수백 명으로 희생되는 악의 재귀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무르는 소로스의 철학대로 묻습니다. 재화를 들고 교회와 사람을 다루는 경지를 넘어서 여러 이름 뒤에 숨은 검은 오류성과 재귀성의 끝은 어디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시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사59장)

마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음란과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는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웬 일인지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엔 거룩하게 시작하여도 점점 악함에 무디어지고 사회전체가 오염을 용인하는 문화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사단에게 점령되기 쉽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더럽다고 주님 앞에 더러움을 쏟아내고 뽐내십시오

자기 중심적 세모와 네모에게 교회들이 악하다고 선포하십시오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다면 그렇다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가난하고 우울함을 당연하게 받지 마십시오

나이가 어리다고 부모님께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행을 분별하여 답습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남자들에게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미워하는 여자들!

모자라고 초라한 삶도 사랑을 하면 빛이 납니다



사도바울이 터키 전도여행 중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후 에게해를 건너 도착한 곳이 그리스 북부 네아폴리스 즉 현재 카빌라(Kavala)였지요. 다른 맥락이나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My Big Fat Greek Wedding)에서 여자 주인공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모든 언어는 그리스에서 비롯됐어”라며 서양문명이 그리스 인에게 시작되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 역사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비롯되었어!” 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 구원을 향한 열정과 이웃과 함께하는 선행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간의 구별되지 않았던 삶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십시오.

함께 애도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망가져서 생긴 아픔이라고!

저도 마음에 노란 리본을 달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와 함께 북한의 인생, 인권, 인도,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인 정책을 추진하자. (롬 12:18-21) 인권은 사람의 권리문제를, 인도는 사람의 도리문제를, 인생은 사람의 영생과 관련된 문제를 그리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고통이산 가족의 생사확인, 연락 및 재회와 납북자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 등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북음통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제도적 준비와 영역 선교사를 키워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등 삶

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나야 한다.

셋째, 북음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 지금 세계와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살펴볼 때에 북음적 평화통일의 문제는 혈과 육에만 관련된 문제적 접근으로서 풀리지 않는다. 여기에는 영적 세계와 관련된 복합적 문제가 있고, 세계 선교의 이슈도 담겨있다. 과거 분단 독일시대에 동독의 라이프찌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진행된 월요평화기도회가 독일통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데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쥬빌리코리아 기도회와 세이레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2015년 8월 15일에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남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북음통일 대성회’가 열리고 평양에 ‘주기철 기념관’이, 금강산에 ‘기독교수양관’이 재건되기를 기도하자.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년으로 우리 민족의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의미의 해이다. 평양이 옛 명성을 회복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본다. 물론, 국토통일, 제도통일, 민족통일을 다 이루어 내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실천적 준비로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허문영 박사  
((사)평화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길 31  
경인프라자 2 층

전화: 01023314623

전자 메일: borabella@daum.net

# 통일세대.com

통일세대 미래포럼에서는 함께 통일문화창작활동을 할 청소년들과 관련된 재능을 기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련분야:

- 청정 농업 관여 청소년
- 창작 코트 제작
- 단편 영화제작
- 청소년 문화 개발영역

청소년문화영역에서  
준비하는 통일

**한반도를 이끌 주체로서 통일세대**

자본과 물질 중심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숭배 중심의 이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교회와 학교, 가정, 사회도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슈가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혼란스럽거나 관심 밖이다. 북음 안에서서 한반도의 젊은이로 인생의 멋진 방향성을 갖자.

**문화콘텐츠와 부르심의 영역에서 conversions**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세제인이 동화할 수 있는 통로이다. 단지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문화코드와 게임, K-culture는 말초적 감동과 음란에 노출되었다. 더불어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이 거대한 자본시장의 주요 감동구매자이다. 이에 통일세대 미래포럼에서는 문화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소비자 아닌 생산자로 일어서는 이 땅의 청년들을 알릴 것이다.

**개척을 모르는 젊은이? 관념적 북음은 이제 그만!**

북음을 실천하는 힘을 주 안에서 훈련하자. 더 이상 설교 단에 머문 북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내가 회복될 때 우리가정이 살아난다. 청년들이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두려워 말자.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MUSIC PERFORMANCE  
VIDEO FORUM**

**FASHION SHOW  
PRAYER CONCERT**

명드보라 (Deborah Yoon Meung) - [borabella@daum.net](mailto:borabella@daum.net) (01023314623)

협찬: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성동글로벌경영고교, ONYX, 인사이드스, 디자이너 김복희 외